

8월 21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8월 21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회복 기대로 사흘째 상승..다우 0.76%↑	뉴욕 증시가 20일(현지시간) 상승하며 사흘째 강세를 이어갔음. 경제지표를 통해 경기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매수세가 이어졌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70.89포인트(0.76%) 상승한 9,350.05에서 마감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98포인트(1.01%) 오른 1,989.22를,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10.91포인트(1.09%) 오른 1,007.37을 각각 기록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신규 실업수당청구가 예상 밖의 증가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로 출발했음. 그러나 앞서 마감된 중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른 점이 투자심리를 호전시키며 장 초반 상승반전에 성공했음. 이어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가 예상 밖의 확장세를 기록하고,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자 주요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음.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의 신임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구제금융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호재가 되었음. 다만 2분기 모기지 대출 채납률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상승세는 다소 제한되었음. 업종별로는 경기회복 기대감을 반영하며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했고, 실적호전을 알린 일부 식품업체들이 강세를 나타냈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23개가 상승했고, 7개가 하락했음.
경기후퇴 종료 신호 뚜렷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음. 필라델피아 연방은행은 8월 제조업지수가 4.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고 11개월만에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경기가 확장세에 있다는 의미임. 또 민간경제연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지난달 경기선행지수가 0.6% 상승한 101.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음. 이로써 경기선행지수는 6달째 오르며 지난 2004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기록했음. 이같은 지표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미국의 경기가 이미 바닥을 친 것으로 진단했음. 조엘 나로프 나로프경제자문 대표는 "경기후퇴는 바닥을 쳤다"면서 "이제 경기회복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관심의 초점을 이동할 때"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와 2분기 모기지 대출 채납률은 경기회복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암시했음.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15일 마감 기준)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가 전주대비 1만 5,000건 증가한 57만 6,000건을 기록했다고 밝혔고 전문가들은 수당청구가 전주보다 감소해 55만건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지만 완전히 빗나갔음. 또 모기지은행협회(MBA)는 지난 분기 전체 모기지 대출 가운데 한 차례 이상 채납한 비율이 9.24%를 기록했다고 밝혔고 이는 MBA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사상최고치 수준임.

제목	주요 내용
유가, 등락끝 소폭 상승..72달러대 유지	국제 유가가 20일(현지시간) 거래에서 등락을 거듭한 끝에 배럴당 72달러 선을 유지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서부텍사스산원유(WTI) 9월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12센트(0.2%) 상승한 72.54달러에 마감했음. 이날 경제지표의 방향이 엇갈리면서 유가 변동성이 커졌다. 필라델피아 제조업지수와 경기선행지수 상승이 유가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신규 실업수당청구 건수가 증가와 모기지 채납률 상승은 추가 상승을 제한했음.
산업대출금 증가율 4년 만에 최저..건설업은 감소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예금은행 산업대출금 잔액은 546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8조3,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음. 이는 지난해 연말 대비 3.5% 늘어난 것으로, 반기 증가율만 놓고 보면 지난 2005년 이후 4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8조2,000억원(4.4%) 늘어났고, 서비스업이 10조6,000억원(4.0%) 늘어났음. 건설업은 1조2,000억원 줄어들어 지난해 연말 대비 -1.2%의 증가율을 보였음. 건설업 대출은 지난해 4분기 -1.9%(전기비) 증가하며 한 차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한 바 있음.
7월 신설법인 5501개..7년만에 최대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의 신설법인수는 5,501개로 2002년 10월(5,619개) 이후 가장 많았음. 매월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숫자는 올해 초 만해도 3,600여개에 불과했으 5월에는 4,029개, 6월에는 5,393개로 급증하는 추세. 한국은행은 이렇게 신설법인이 증가하는 배경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난 5월 소규모 회사 설립 규제를 완화한 상법 개정안의 통과 등을 꼽았음. 새로 생기는 회사는 늘어나고 있는 반면 부도업체 수는 매우 적음. 7월의 전국 부도업체수는 129개로 전달(6월)보다는 4개 더 늘었으나 전체적으로는 매우 낮은 수준임. 지난달 부도업체수(125개)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9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음.
8월26일 이내 나로호 재발사 타진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제 2차관은 20일 브리핑에서 "나로호 발사 중단 이유를 조사한 결과, 자동시퀀스상의 고압탱크의 압력을 측정하는 소프트웨어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음. 하드웨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이를 인식하는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발생해 나로호 발사가 자동 중단됐다는 설명. 이와 관련 지난 19일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나로호 발사는 7분 56초 전 추진제 공급 경로상의 밸브가 작동된 후 고압탱크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자동발사가 중단됐음. 김 차관은 "1~3일 정도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뒤 나로호 발사 일정을 신중하게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